



卷 頭 言

大韓病院協會 創立第25周年
記念日に 즾음하여

大韓病院協會 會長 白 樂 院

우리나라 病院史에 莫重한 使命을 負荷받고 있는 大韓病院協會가 1959年 7月 2日에 創立된 以來, 微力이나마 國民醫療向上과 病院界發展에 寄與하면서 한해 두해 그 成長의 뿌리를 내려온지 어언 四半世紀를 헤아리게 된것을 本人은 全國 會員病院과 더불어 깊은 感懷와 함께 慶賀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本會의 育成發展에 直接 間接으로 協助와 聲援을 베풀어주신 國民 여러분을 爲始해서 政府當局, 言論, 學界等 有関機關 및 醫療界 諸賢께 머리숙여 感謝를 드리는 同時에 特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오로지 本會 發展을 爲해 不撤晝夜로 心血을 傾注해 오신 歷代 會長團과 任職員 여러분의 勞苦에 對해서도 높은 致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6. 25 動亂 以後 發展을 指向하는 새로운 次元의 現代醫療史가 펼쳐지기 시작하던 時代에 出帆한 本會가 草創期에는 親睦團體라는 範疇를 벗어나지 못했었으나 漸次 會員病院이 增加되면서 病院經營管理의 合理化, 病院施設의 發展, 病院要員의 資質向上, 修練教育의 內實化, 病院情報의 交換, 會員病院의 權益保護 및 醫療施惠의 擴大等 그 役割과 機能이 莫重해져 가고 있음을 痛感합니다.

따라서 本會는 앞으로 協會 自體의 調查研究機能을 더욱 強化하여 非現實的인 醫療保險酬價體系, 病院의 公益性을 外面하고 있는 不合理한 病院稅制 및 公課金, 그리고 各種 醫療原價의 上昇等 病院經營과 關聯된 모든 政策을 立案建議하는 「政策建議團體」로서 昇華發展되어 나가야만 되리라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同時에 이와같은 우리의 政策建議가 實現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病院人 모두의 슬기를 모아 一致團結하여 그 存在價值를 認定받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나가는 길에 倍前의 協助와 聲援 그리고 채찍이 함께 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